

이상과 포부를 같이 하는 우방

「멀든」 뉴질랜드수상 부처를 위한 오찬인사

1981년 4월 20일

수상각하, 그리고 영부인!

오늘 「멀든」 수상각하 내외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방한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뉴질랜드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부유한 나라로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한국동란시 많은 지원을 베풀어 준 나라로서 우리 한국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들은 뉴질랜드 정부와 국민의 영웅적 헌신에 항상 감사의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상각하!

본인은 방금 각하와 함께 현금의 국제정세와 양국간 공동관심사에 관하여 광범위하고도 유익한 대화를 가졌습니다.

본인은 양국간의 우호관계,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협력관계가 최근 그 영역과 내용에 있어 날로 충실해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질랜드에는 “바구니의 저쪽은 당신이 잡고 이쪽은 내가 잡는다”는 속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협력을 강조하는 이 속담이야말로 발전해 가는 한국과 뉴질랜드 두 나라의 오늘의 협력관계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은 우리 양국이 이 지역에서 이상과 포부를 같이하는 민주 우방국으로서, 아세아-태평양지역 뿐만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각하의 금번 방한은 양국간의 기존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각하의 방한이 유쾌하고 보람된 것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귀빈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 폐하와, 「멀든」 수상 내외분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양국간의 항구적인 우의를 위하여 축배를 듭시다.